

## 사사기 3:19의 מִלְחָמָה 번역 제안과 이해 — 에훗 이야기를 중심으로 —

장석정\*

### 1. 서론

사사기에 기록된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시작으로 순환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벌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자로서의 사사를 세워주시게 되는데 이 사사의 활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땅이 평온해지게 된다.<sup>1)</sup>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구약학 교수. schang15@cku.ac.kr.

1) 사사기에 대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최근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사야, “사사 시대와 사사기의 하나님 임재 상징”, 『종교연구』 58 (2010), 275-300; 임봉대, “사사기 1:9-15에 나타난 남부지파들의 정착과 약속의 땅 성취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26 (2020), 37-59; 장석정, “사사기에 사용된 šapat 동사 우리말 번역 제안 — 사사 웃니엘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9 (2016), 7-25; 장석정, “사사기 순환구조 재고: 가능성 있는 내용의 부재를 중심으로”, 『신학논단』 84 (2016), 144-45; 장석정, “기드온 시대의 바알 숭배 연구 — 사사기 6:25-32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2 (2018), 9-34; 장석정, “공존의 위험성: 삼손이야기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91 (2020), 209-236; 장석정, “들릴라 다시 보기: 사사기 16장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95 (2021), 11-36; 장석정, “‘과도기적(過渡期的) 나실인’ 삼손 — 사사기 13장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5 (2021), 1-32; 장석정, “모호성(Ambiguity) 연구: 입다의 서원 이야기(삿 11:29-40)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97 (2022), 37-61; 장석정, “사사기 11:37-38 번역 연구 — ‘처녀로 죽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0 별책 (2022), 14-21; 정일승, “사사기에 나타난 ‘여호와와의 영’의 임재 현상에 대한 우리말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40 (2017), 7-29.

사사기 3:12-30에 기록된 에훗 이야기를 보면, 에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원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구원자로 임명된 에훗이 모압의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내용이 흥미진진하게 묘사되고 있다.

필자는 에훗 이야기의 이해에 있어서 우리나라 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는 MT 본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 과정에 기인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에 따르면, 사사기 3:19에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sup>2)</sup>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인 『성경전서』(1911)의 번역에서부터 이렇게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용어에 대한 번역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성경전서』가 처음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한 순간부터 무려 112년이 지난 2023년 현재까지 에훗 이야기는 이런 번역으로 인해서 이해하기 힘든 본문으로 남아 있다.

“돌 뜨는 곳”이라는 표현에서 “돌을 뜨다”라는 것은 “바위에서 석재를 만들어 내다”라는 의미로서, “돌 뜨는 곳”은 채석장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면 에훗의 에글론 암살 이야기의 진행 과정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단순히 에훗이 거쳐간 장소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번역에 해당하는 MT의 히브리어 단어 **אִלְפִיטָן**은 본래 “조각된 돌들”(sculptured stones)이라는 의미로서 “채석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를 크게 벗어나는 번역이 된다. 더구나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에훗 이야기 전체에 대한 이해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될 것이다. 첫째, MT, LXX, TAR 등의 본문을 분석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번역 성경들과 1911년부터 출간된 다양한 우리말 성경들을 비교 분석해서 『성경전서』의 “돌 뜨는 곳”이라는 번역의 유래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에훗 이야기의 이해에 있어서 기존의 번역(“돌 뜨는 곳”)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번역은 이전 번역에 비해서 얼마나 에훗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론 기존의 학자들의 번역과 해석들을 비교 분석하게 된다. MT에 기초한 우리말 번역을 새롭게 제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에훗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겠다.

2) 삿 3:26에도 똑같이 번역되어 있다.

## 2. 사사기 3:19의 MT와 다양한 번역 본문들 비교

### 2.1. MT

וְהוּא שָׁב מִן־הַפְּסִילִים אֲשֶׁר אֶת־הַגִּלְגָּל וַיֹּאמֶר דְּבַר־סֵתֶר לִי אֱלֹהֵי הַמָּלְךְ  
 וַיֹּאמֶר הִס וַיֵּצֵא מֵעֵלְיוֹ כָּל־הַעֲמֻדִים עִלָּיו

(사역) 그러나 그는 길갈 근처의 조각된 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께 말씀드릴 비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조용히 하라!”고 말했고, 그의 시중을 들던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물러갔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MT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הַפְּסִילִים**은 “조각된 돌들”(the sculptured stones)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2.2. 번역 성경들

#### 2.2.1. LXX

καὶ αὐτὸς ὑπέστρεψεν ἀπὸ τῶν γλυπτῶν τῶν μετὰ τῆς Γαλγάλ. καὶ εἶπεν Ἄωδ· λόγος μοι κρύφιος πρὸς σε, βασιλεῦ. καὶ εἶπεν Ἐγὼ μὲν πρὸς αὐτόν· σιώπα· καὶ ἐξαπέστειλεν ἀφ’ ἑαυτοῦ πάντας τοὺς ἐφροστῶτας ἐπ’ αὐτόν.

(그는 길갈 근처에 있는 조각상들(the sculptures)로부터 돌아와서;...)

LXX에서 사용된 **γλυπτῶν**는 **γλύπτης**(=sculptor)의 복수 소유격(genitive)으로서 **γλύφω**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인데, “조각하다(carve), 새기다(engrave)” 등의 뜻으로 “sculptures”라고 번역될 수 있다.

#### 2.2.2. TAR (Targum)

whw' tb mn mhšby' d'm glgl'

(but he himself turned back at the quarries which are near Gilgal...)

3:19의 전반부의 TAR(Targum, 타르굼) 본문을 보면, MT의 **הַפְּסִילִים**이라는 단어를 **mhšby'**(=“quarries”)로 번역하고 있다. 물론 **הַפְּסִילִים**이라는 MT의 단어는 “sculptured stones”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스멜릭(W. Smelik)에 따르면 TAR에서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시리아어가 가진 “stone-quarry”라

는 의미에 기인한다.<sup>3)</sup>

이상으로 MT와 번역 성경인 LXX, TAR을 비교해 보았는데, MT의 סִלְטָנִים이라는 표현이 LXX에서 “조각상들”(the sculptures)로 번역되었고, TAR에서는 “채석장”(the quarries)이라고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전서』의 번역자회는 MT, LXX, TAR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sup>4)</sup>, 남은 선택지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성경들을 살펴보기 전에 1911년 이후에 출간된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 2.2.3. 한글 성경들

『성경전서』(1911)	돌 쓰는 곳
『성경개역』(1938)	돌 쓰는 곳
『개역한글』(1961)	돌 뜨는 곳
『개역개정』(1998)	돌 뜨는 곳

이상의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특징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전서』부터 “돌 쓰는 곳”으로 번역된 것이 개신교에서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돌 뜨는 곳”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sup>5)</sup> “조각된 돌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סִלְטָנִים)를 “채석장”을 의미하는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몰라서 잘못 번역했다고 하기에는 그 의미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런 우리말 번역은 최초의 우리말 번역 성경인 『성경전서』(1911)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으며, 이것이 무려 87년 동안(1911년에서 1998년까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번역자회가 참고했던 성경이 MT가 아니라, 다른 번역 성경들(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번역 성경들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서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하게 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번역 성경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성경전서』의 “돌 쓰는 곳”

3) W. Smelik, *The Targum of Judges* (Leiden: Brill, 1995), 372.

4)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복합적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8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8; 장석정, “출애굽기 4:10의 번역 제안과 이해 —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 32.

5) 한편 가톨릭 성경들은 처음부터 “우상들이 서 있는 곳”(1977)이라는 번역의 틀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돌 우상들이 있는 곳”, 2005)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톨릭의 성경 번역은 MT의 내용을 번역했다기보다는 VUL의 번역(“우상들이 있는 곳”)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라는 번역은 어떻게 유래하게 되었을까를 추적해 보기로 하자. 번역 성경들 중에서 먼저 영어 성경을 살펴보자.

#### 2.2.4. 영어 성경들

##### **KJV(1611)**

But hee himsef turned again from the quarries that were by Gilgal, and said, I haue a secret errand vnto thee, O king: who said, Keepe silence. And all that stood by him, went out from him.

왜 KJV 번역에서는 “채석장”(the quarries)이라고 되어 있는 것일까? MT와 LXX에는 “채석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TAR에서는 “채석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KJV의 번역이 유독 TAR의 번역과 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KJV가 번역될 당시에 MT, LXX, TAR이 사용되었고, 불가타 성경(VUL)과 기존의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성경들도 참조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TAR의 번역과 KJV의 번역이 일치한다는 것은 KJV가 TAR의 번역에 무게를 실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ERV(1881)**

But he himself turned back from the quarries that were by Gilgal, and said, I have a secret errand unto thee, O king. And he said, Keep silence. And all that stood by him went out from him.

##### **ASV(1901)**

But he himself turned back from the [c]quarries that were by Gilgal, and said, I have a secret errand unto thee, O king. And he said, Keep silence. And all that stood by him went out from him.

[c] or, graven images

##### **NJPS(1988)**

But he himself returned from Pesilim<sup>6)</sup>, near Gilgal, and said, “Your Majesty,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Eglon] thereupon commanded, “Silence!” So all those in attendance left his presence.

---

6) HALOT은 מִיִּלִּים을 여리고 지방에 있는 한 장소의 이름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HALOT, 948.

영어 성경 중에서 NJPS(The New Jewish Publication Society Translation)의 번역에는 특징적으로 אִבְרָם을 마치 지명인 것처럼 Pesilim으로 번역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지명으로 간주해서 번역하면, 뒤에 이어지는 에훗과 에글론의 대화와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אִבְרָם이 지명일 가능성은 낮게 본다.

**NRS(1989)<sup>8)</sup>**

But he himself turned back at **the sculptured stones** near Gilgal and said,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O king.” So the king said, “Silence!” and all his attendants went out from his presence.

**NET(New English Translation)(2001)**

But he went back once he reached **the carved images** at Gilgal. He said to Eglon,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O king.” Eglon[ai] said, “Be quiet!” All his attendants left.

이상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번역 성경에 있어서는 적어도 17세기(KJV, 1611)부터 20세기 초(ASV, 1901)까지는 “채석장”(quarries)이라고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RSV, NRS, NET)에 와서야 비로소 “sculptured stones” 혹은 “carved images”(NET) 등으로 MT의 אִבְרָם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는 번역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경전서』의 번역자회가 참고했던 영어 번역 성경들 중에서 KJV, ASV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돌 쓰는 곳”이라는 번역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2.2.5. 중국어 성경**

**神天聖書 <모리슨역> (Morrison’s Version, 1823)**

自己乃由近乎厄以勒厄亞勒之**石礦**歸去說云、王乎、我向爾有隱差使、王乃令嘿、而侍者皆出離之。

<모리슨역>은 石礦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채석장”(the quarry),

7) 스미스(M. Smith)도 그의 주석서에서 19절의 Pesilim을 지명처럼 번역하였다. M. Smith, *Judges 1: A Commentary on Judges 1:1-10:5*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21), 189-190, 222. 슈나이더(T. Schneider)도 그녀의 연구서에서 “After returning from Pesilim near Gilgal”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T. Schneider, *Judges*, Berit Ola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50.

8) RSV(1952)의 번역도 NRS의 번역과 일치한다. “at the sculptured stones near Gilgal.”

즉 “돌 뜨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성경전서』의 번역과 그 의미가 일치한다.

**文理委辦譯本 <대표역본> (1856)**

自往吉甲、至有雕刻形之處而反、奏於王曰、我有密事、欲以上告。王欲靜謐、屏其侍從。

<대표역본>은 채석장이라는 의미보다는 刻形之處, “조각된 형상이 있는 곳”(where there was a sculptural shape)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우상”과 같은 종교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전서』의 번역과는 다르다.

**裨治文譯本 <브리지만-컬벗슨역> (Bridgman-Cullbertson’s Version, 1864)**

以忽自由近吉甲列諸像之所而返、告曰、王歟、我有密事告爾。王曰、禁聲、旁立者悉退而出。

『성경전서』의 번역자회가 중요하게 참고했던 것으로 보이는<sup>9)</sup> <브리지만-컬벗슨역>에는 諸像之所, “동상이 있는 장소”(the place of statue)로 번역하고 있어서, 『성경전서』의 “돌 뜨는 곳”이라는 번역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北京官話譯本 <쉐레셰브스키 관화역본> (1875)<sup>10)</sup>**

他自己從靠近吉甲的偶像地方回來、對王說、我有一件機密事稟告王、王說、靜避罷、於是左右侍立的人都退去了。

<쉐레셰브스키 관화역본>을 보면 偶像地方, “우상이 있는 장소”(the place of the idol)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서, 히브리어 단어인 מִלְבָּרַח을 종교적 뉘앙스를 넣어서 번역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성경전서』의 번역과는 다르다.

이렇게 중국어 성경들의 번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경전서』의 번역자회는 <대표역본>(1856)(where there was a sculptural shape)이나 <브리지만-컬벗슨역>(1864)(the place of statue)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모리슨역>(1823)이 번역한 石礦(=the quarry)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9)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복합적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8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8.

10) 施約瑟淺文理譯本 <쉐레셰브스키 쉬운 문리역> (1902)도 “偶像”으로 번역했다.

측면에서 보면, 번역자회는 구약성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MT를 직접 참고해서 번역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당시에 참고할 수 있었던 번역 성경들 중에서 취사선택(KJV, <모리슨역>)해서 우리말(“돌 쓰는 곳”)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높다.

## 2.2.6. 일본어 성경

### <메이지역>(1887)

自らはギルガルの傍なる**石像の在る所**より引き回していひけるは王よ我爾に告ぐべき密事ありと王人拂を命じたればその旁に立つものみな出で去りぬ

He himself led him away from **the place where the stone statue** beside Gilgal **was**, and the king said that there was a secret that I had to tell him.

<메이지역>은 “우상”이라는 뉘앙스는 없고, 단순히 **石像の在る所**, “돌 형상이 있는 장소”(where the stone statue is)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서 MT를 제대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전서』의 “돌 쓰는 곳”이라는 번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에훗 이야기 본문 이해

최근의 에훗 연구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해학이나 유머로 보는 연구<sup>11)</sup>, 2) 암살 과정과 도피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sup>12)</sup>, 3) 은밀한 일, 신의 메시지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sup>13)</sup> 4) 에훗의 암살에 관련

11) J. Magness, “Toilets and Toilet Humor in the Story of Eglon’s Murder by Ehud (Judges 3:15-26)”, *JBL* 142 (2023), 65-89; E. Christianson, “A Fistful of Shekels: Scrutinizing Ehud’s Entertaining Violence (Judges 3:12-30)”, *BI* 11 (2003), 53-78. 한편 쎄순(J. Sasson)은 에훗 이야기가 받아들여진 역사를 철저히 살펴본 결과, 이를 유머러스한 요소를 가진 내러티브로 보는 대신 풍자로 봄으로써, 최근의 연구자들은 에훗 이야기의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냈다. J. Sasson, “Ethnically Cultured Interpretations: The Case of Eglon’s Murder (Judges 3)”, G. Galil, M. Geller, and A. Millard, eds., *Homeland and Exile: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in Honour of Bustenay Oded*, VTSup 130 (Leiden: Brill, 2009), 591.

12) R. Chisholm, “What’s Wrong with This Picture? Stylistic Variation as a Rhetorical Technique in Judges”, *JSOT* 34 (2009), 171-182.

13) R. Schroeder, “Eglon’s Fat and Ehud’s Oracle: A Reconsideration of Humour in Judges 3.12-30”, *JSOT* 46 (2022), 460-479.



된 속임수(deception, trickery)의 정당성에 집중하는 경우<sup>14)</sup>가 그것들이다.<sup>15)</sup> 에훗 이야기에 나오는 폭력성은 사회적인 해학(satire)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sup>16)</sup>, 에훗의 살인과 요압의 경우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비교 연구한 논문도 있다.<sup>17)</sup> 특히 왕(G. Wong)은 에훗의 살인 행동에서 그의 ‘속임’(deception)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sup>18)</sup> 그러나 치شم(R. B. Chisholm)의 경우에는 사사기의 내레이터가 에훗을 철저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옷니엘과 더불어 전형적인 구원자로 부각시켰다고 본다.<sup>19)</sup>

코트릴(A. C. Cottrill)은 야엘과 시스라 이야기와 함께 에훗 이야기에 나오는 폭력성에 관해서 고려하는데, “affect theory”를 사용해서 폭력적인 이미지가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다.<sup>20)</sup> 또한 니프(H.-D. Neef)는 ‘Kälbermann’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부정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반대하면서, 대신 에훗 이야기의 뒤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 주심으로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던 에훗의 능력을 살펴보게 해 주는 ‘영웅 전설’(hero saga)이라는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sup>21)</sup>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온 에훗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에훗이 에글론을 성공적으로 암살하고 무사히 도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오히려 에훗의 에글론 암살 장면 바로 직전까지의 내러티브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던 중에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방향을 돌려 에글론에게 홀로 찾아갔던 것에서 시작해서 에글론이 좌석에서 일어나는 장면까지(3:19-20)의 단 두 절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 두 절이 전체 에훗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이 “돌 뜨는 곳”이라는 번역이 새롭게 번역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드러나기

14) E. Christianson, “A Fistful of Shekels”, 53-78; R. B. Chisholm, “Ehud: Assessing an Assassin”, *BS* 168 (2011), 274.

15) 2017년에 켈리 머피(K. Murphy)가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CBR)라는 학술지에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다. K. Murphy, “Judges in Recent Research”, *CBR* 15 (2017), 179-213.

16) E. Christianson, “A Fistful of Shekels”, 54.

17) G. Wong, “Ehud and Joab: Separated at Birth?”, *VT* 56:3 (2006), 400-401.

18) *Ibid.*, 410.

19) R. B. Chisholm, “Ehud: Assessing an Assassin”, 282.

20) A. C. Cottrill, “A Reading of Ehud and Jael through the Lens of Affect Theory”, *BI* 22:4-5 (2014), 430-449.

21) H.-D. Neef, “Eglon as ‘Kälbermann’? Exegetische Beobachtungen zu Jdc 3:12-30”, *VT* 59:2 (2009), 284-294.

때문이다.

### 3.1. 본문 해석(3:19-20)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3:19-20보다 이전에 나오는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행을 저지르니, 여호와께서 모압을 강하게 만드셔서<sup>22)</sup>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3:12-14).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워주셨다(3:15).<sup>23)</sup> 그가 칼을 숨기고 가서 비둔한<sup>24)</sup>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3:16-17).<sup>25)</sup> 여기서 ‘비둔한’ 사람으로 묘사된 것과 에글론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작은 송아지’ 혹은 ‘어린 황소’와 연관 지어서 에글론을 도살될 정도로 살이 찐 희생 제물로 보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sup>26)</sup> 아우스루스(H. Ausloos)도 이 용어는 대부분 동물에게 사용되며, 에글론을 도살되어야 하는 살찐 짐승으로 보는 저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sup>27)</sup> 또한 그는 אִלְהוּתֵּיּהֶם을 “조각된 돌들”(sculptured stones)이라고 번역하면서, 이곳을 언급한 것은 19절과 26절에서 에훗의 은밀한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앞뒤에서 감싸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19-26절이 에훗 이야기에서 핵심을 이룬다고 주장한다.<sup>28)</sup>

22) 이스라엘의 대적을 여호와가 강성하게 만드셨다는 내용은 사사기 순환 구조에 있어서 여기가 유일하다. E. Christianson, “A Fistful of Shekels”, 62.

23) ‘구원자’라는 표현은 오직 옷니엘과 에훗에게만 사용되었고, 히필 분사형(hiphil participle)이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두 사사들은 특별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R. B. Chisholm, “Ehud: Assessing an Assassin”, 279.

24) 스톤(L. Stone)은 뚱뚱하다거나 비둔하다는 의미보다는 건강함(healthiness)이라는 뜻으로 보았다. 스톤은 이에 대한 근거로 LXX A and B를 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Eglon was a very handsome man”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L. Stone, “Eglon’s Belly and Ehud’s Blade: Reconsideration”, *JBL* 128 (2009), 650-652.

25) אִלְהוּתֵּיּהֶם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되어서 “살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이는 도살될 다양한 동물들에게 적용되었다. 이는 에글론(송아지, calf)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린다. 즉 에글론이 마치 희생 제물(sacrificial animal)로 보면서 곧 도살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견해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많다. M. Smith, *Judges 1*, 221.

26) P. Wénn, “Le »point de vue raconté«, une catégorie utile pour étudier les récits bibliques?: L’exemple du meurtre d’Églôn par Éhud (Jdc 3,15-26a)”, *ZAW* 120 (2008), 22.

27) H. Ausloos, “The Story of Ehud and Eglon in Judges 3:12-30: A Literary Pearl as a Theological Stumbling Block”, *OTE* 30 (2017), 230.

28) אִלְהוּתֵּיּהֶ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서 약 20회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상들”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에훗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세운 “돌들”(수 4:20-24)을 상기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필자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의 의미인 “조각된 돌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한 후에 각주를 달아서 이 단어가 다른 맥락에서는 “우상”을 의미할

(3:19)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  
밀한 일<sup>29)</sup>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But he himself turned back at the sculptured stones near Gilgal, and  
said,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O king." So the king said,  
"Silence!" and all his attendants went out from his presence. (NRS)

NRS(1989)에는 이미 KJV의 “채석장”이라는 번역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히브리어 단어를 제대로 번역한 “조각된 돌들”(the sculptured stones)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10년 후인 1998년에 나온 『개역  
개정』은 여전히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  
다.

웹(B. Webb)은 “the sculptured stones”이라고 번역하면서, 에훗이 이 돌들  
이 있는 곳에서부터 돌아가서 에글론에게 “하나님의 명령”(20절)에 따라  
“은밀한 일”(19절)을 아뢰려 한다고 말한 것은 이 돌들이 에글론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에훗도 이 점을 알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고 본다.<sup>30)</sup>

“조각된 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에훗이 돌아갔다는 내용은 거기에서  
에훗이 신의 계시(oracle)를 갖고 돌아왔다고 에글론이 생각하게끔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더욱 중요하다.<sup>31)</sup> 아미트(Y. Amit)는 에  
훗이 조각된 돌들이 있는 곳을 방문했다는 것이 에글론으로 하여금 에훗의  
“은밀한 일”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도록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고 분  
다.<sup>32)</sup>

에글론의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에훗은 왕에게 “은밀한 일”을  
언급하는데, 이 표현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그들이(officials) 물러가고 왕과  
단들이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또한 왕의 “조  
용히 하라”는 한 마디로 현실이 된다. 에훗이 숨겨온 “날선 칼”로 “비둔한”

수도 있다는 설명을 붙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Ibid., 231.

29) “은밀한 일”(『성경전서』, 1911).

30) “the sculptured stones” 라는 표현은 신성한 장소나 신전에 위치하며, 길갈의 근처에 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볼 수 있다. B. Webb, *The Book of Judges: An  
Integrated Reading*, JSOTSup 4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172.

31) Ibid., 173.

32) Y. Amit,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diting* (Leiden: Brill, 1999), 112.

에글론을 효과적으로 암살하려면 그를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어 일어난다고 말한다. 에글론은 이런 에훗을 예의를 갖추어 대접하면서 그 명령을 받기 위해, 이 말을 듣자마자 좌석에서 일어나게 되고 에훗이 그를 해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 에글론 자신도 모르게 그 자신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 희생제물(sacrificial animal)처럼 에훗 앞에 서게 된 것이다.<sup>33)</sup>

콘웨이(M. Conway)에 따르면, מִלִּפְתֵּיחַ를 장소 이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는 구약성서의 다른 모든 본문에서 이 단어가 분명하게 제의적인 목적을 가진 “carved images”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이런 해석은 사사기의 에훗 이야기와 잘 맞아 떨어진다.<sup>34)</sup>

에훗이 “은밀한 일”에 관해서 말할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에글론이 관심을 보인 것은 만약 에훗이 길갈 근처의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고 왕이나 궁중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더욱 이해가 된다.<sup>35)</sup> 이런 내용이 비록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독자들은 앞 구절들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문에 이 사실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곳에 신전이 있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따라서 ‘은밀한 일’ 과 ‘하나님의 명령’ 등의 표현들을 통해서, 에훗이 우상이 서 있는 곳에서 받은 신의 계시를 왕을 위해서 전달하려고 한다고 에글론이 믿게 만든 것이다.<sup>36)</sup>

내레이터가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은 것들의 중요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에훗이 “조각된 돌들이 있는 곳”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내레이터와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에글론 왕에게 말했다는 내용은 본문에 없다. 그렇지만 에훗 본인이 그런 사실을 신하들이나 왕에게 말했다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물을 바치고 에훗이 돌아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자면 어디를 갔다가 돌아왔다는 말을 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성서 본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미 독자들은 19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쌌슨(J. Sasson)은 מִלִּפְתֵּיחַ를 “the hewn images near Gilgal”이라고 번역하는데, ‘길갈’이 ‘둥근 것’이나 ‘원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연관해서

33) B. Webb, *The Book of Judges*, 173.

34) M. Conway, *Judging the Judges: A Narrative Appraisal Analysis*, LSAWS 15 (University Park: Eisenbraun, 2020), 98-100.

35) *Ibid.*, 101.

36)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God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믿는 gods를 의미할 수도 있다. *Ibid.*, 92, 101.

돌들이 원으로 나열되어 있는 높은 장소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수 4:20-23).<sup>37)</sup> 이런 형태의 돌들은 고대 근동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은 깎아서 만든 돌들이고 대부분이 글자가 새겨 있지 않고 부조(reliefs)도 없다.<sup>38)</sup> 마리(Mari)의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자료들에 따르면, 이런 돌들을 세우는 것과 신성한 공간, 제의 의식, 희생 제사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9)</sup> 따라서 길갈과 그 근처의 מִלִּיטָרִים를 주목해 보면, 본문 내용이 발생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왜 에글론이 신과의 의사소통하는 것에 민감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sup>40)</sup> 이처럼 쎄슨도 19절의 “은밀한 일”과 20절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표현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41)</sup>

넬슨(R. Nelson)은 מִלִּיטָרִים를 “divine images”라고 번역하면서도 이것을 “carved stones”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sup>42)</sup> 넬슨에 따르면 이것은 경계 지점을 지키는 gods 혹은 spirits를 대표하는 제의적인 설치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혹은 이것들이 경계 표식들(border markers)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특히 에훗 이야기 속에서 이 돌들은 경계선(boundary)으로서의 기능을 하며(19, 26절), 만일 이 돌들이 divine images라면, 에글론은 에훗이 말한 secret word가 ‘신의 계시’(oracle)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sup>43)</sup>

봉신(vassal)은 주군에게 “은밀한 일”, 즉 민감한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진 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sup>44)</sup> 19절에서 “은밀한 일”이라고 번역된 표현에는 מַסְמֵר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은밀한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은밀한 물건(object)의 뜻도 있다. 즉, 성서 저자는 에훗이 숨겨온 칼을 의미하고 있다고 아우스루스는 주장하는데, 필자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sup>45)</sup> 암살자가 암살 대상에게 굳이 이렇게 자신이 숨겨온 무기를 암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사사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무기’를 겨냥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내러티

37) J. Sasson, *Judges 1-12*, Anchor Yale Bible 6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230.

38) *Ibid.*, 231.

39) *Ibid.*

40) *Ibid.*

41) 19절 “I have a secret message for you, O King!” 20절 “I have a divine message for you.” 여기서 엘로힘은 God or gods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 מַסְמֵר라는 단어는 word(=message), 혹은 act(assassination or the like)를 모두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J. Sasson, *Judges 1-12*, 232.

42)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들과의 가능성 있는 연관성은 흥미롭다(수 4:20). R. Nelson, *Judges: A Critical & Rhetorical Commentary* (New York: T & T Clark, 2017), 51.

43) 그러나 내레이터는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Ibid.*

44) M. Smith, *Judges 1*, 223.

45) H. Ausloos, “The Story of Ehud and Eglon in Judges 3:12-30”, 232.

브의 상황 속에서는 위험천만한 말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가능성은 배제하기로 한다.

(3:20)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sup>46)</sup>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19절에서와 같이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번역된 표현에도 מַלְאָכָה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독자와 에글론에게 각각 서로 다르게 이해되었다고 아우스루스는 주장한다. 즉, 독자들에게는 מַלְאָכָה 역시 에훗이 숨겨 온 칼을 의미하며, 에글론에게는 신의 계시(oracle)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좌석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sup>47)</sup> 그러나 מַלְאָכָה가 반드시 무기를 의미할 필요 없이 일관성 있게 “조각된 석상”이 있는 곳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슈뢰더(R. Schroeder)는 “하나님의 명령”(a message from a deity)을 고대 서아시아 주술(ancient West Asian divination)에 연관시키면서, 신으로 왕이 받게 되는 메시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한다. 첫째, 신의 계시는 종종 신에게 바치는 제물과 신전의 기구들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신의 계시는 왕에 대한 공개적인 승인(approval)을 표현한다는 것이다.<sup>48)</sup>

요세푸스는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왕좌에서 뛰어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글론은 에훗의 신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요세푸스는 이해한 것이다.<sup>49)</sup> 여기서 “좌석에서 일어나니”(20절)라는 내용에서 ‘좌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מִנְבֵּלָה는 ‘왕좌’, ‘좌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변기’(toilet seat)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50)</sup> 그러나 넬슨은 이런 번역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큰 모욕이 된다고 보면서 ‘왕좌’(throne)로 보는 것이 왕의 품격에 맞는다고 주장한다.<sup>51)</sup>

46) “하나님의 명”(『성경전서』, 1911).

47) H. Ausloos, “The Story of Ehud and Eglon in Judges 3:12-30”, 232.

48) R. Schroeder, “Eglon’s Fat and Ehud’s Oracle”, 469-470.

49) Josephus, *Ant.* 5.188; R. Schroeder, “Eglon’s Fat and Ehud’s Oracle”, 471-2에서 재인용

50) J. Magness, “Toilets and Toilet Humor in the Story of Eglon’s Murder by Ehud (Judges 3:15-26)”, 86.

51) R. Nelson, *Judges*, 51.

### 3.2. 에훗과 에글론의 독대

공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신임을 얻은 에훗은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의심을 받지 않고 왕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잡았다.

- 1)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왕은 에훗이 돌 뜨는 곳에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왕 자신에게 말할 은밀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에훗이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겠다고 했을 때, 왕은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은밀한 일이니까 다른 부하들이나 시종들이 들으면 안 된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에훗이 “돌 뜨는 곳”을 들렀다는 사실을 왕이 알았다면 이 구절은 더욱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이 돌 뜨는 곳은 새긴 우상들이 있는 곳으로서 신을 숭배하는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곳을 들렀던 에훗이 어떤 종류의 신적인 계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에글론이 염두에 두었다면 에훗이 은밀한 일을 아뢰겠다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신의 계시를 왕 자신에게도 알려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2)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에훗은 이 두 가지 목적(왕과의 독대, 왕이 일어나 남)을 달성했다.<sup>52)</sup>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왕의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한다.<sup>53)</sup> 공물을 바침으로써 에훗은 에글론에게 그의 충성을 보여주었다. **은밀한 일**이라는 표현 속에서 에훗은 에글론에게 중요한 정치적인 정보를 약속했을 때 그는 모압 정부와 협업을 하는 사이가 자발적으로 되었음을 입증한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말씀(20절)**을 받들어서 왕에게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은 에글론의 통치권에 대해서 신이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게 만들었다.<sup>54)</sup>

에훗의 전략(공물을 바침, 돌 뜨는 곳, 은밀한, 신의 명령)은 한 가지 요소

52) B. Webb, *The Book of Judges*, 188.

53) R. Schroeder, “Eglon’s Fat and Ehud’s Oracle”, 471.

54) 왕은 그 땅의 신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Ibid.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왕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었다. 왕과 단 들이만 있어야 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채우는 전략이 이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야 에훗이 준비한 단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과의 물리적인 거리**”야말로 에훗 이야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은 왕으로 하여금 좌석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왕이 일어날 일이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신의 계시를 받을 때, 예의를 갖추면서 왕조차도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왕이 권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에글론의 비둔함을 언급한 것(17절)은 에훗이 준비한 단검으로 에글론을 죽이려면 그가 서 있을 때 공격해야 효과적이라는 것과 연관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성경전서』가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하는 순간(1911년)부터 에훗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성이 자취를 감춰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준다. 그리고 이런 번역이 맞춤법만 개정되고 아무런 수정도 없이 현재의 『개역개정』에 “돌 뜨는 곳”이라는 번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에훗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조각된 돌들이 있는 곳”으로 번역하면 이런 해석상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오롯이 에훗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를 모든 한국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

####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에훗 이야기의 MT 히브리어 표현 מַלְאָכָה의 번역은 『성경전서』(1911)에서부터 『개역개정』(1998)까지 “돌 뜨는 곳”(=채석장)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성경전서』 번역자회가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문 성경들과 번역 성경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즉, 원래 히브리어 표현 מַלְאָכָה의 뜻이 “조각된 돌들”(the sculptured stones)인데, LXX는 “조각상들”(the sculptures)이라고 번역한 반면에 TAR에서는 “채석장”(the quarries)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이다. TAR의 이런 번역이 중요한 것은 불가타(Vulgate)의 번역이 “우상들”(the idols)이라고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JV, ERV, ASV 등의 영어 성경들



은 TAR와 똑같이 “채석장”(the quarries)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전서』의 번역자회는 원문 성정보다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번역 성경들을 참고해서 번역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중에서 우선 영어 성경들은 “채석장”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들에 무게를 두고 『성경전서』의 번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제까지 번역자회가 주로 참고한 것은 <브리지만-퀄벳슨역> 혹은 <대표역본>이라고 학계에서 보고 있던 것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중국어 성경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두 가지 중국어 성경들은 “조각된 형상이 있는 곳”(대표역본), 혹은 “여러 형상이 있는 곳”(브리지만-퀄벳슨역)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성경전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오히려 <신천성서>(모리슨역)는 “채석장”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경전서』 번역자회는 영어 성경들 중에서 KJV, ERV, ASV를 참고하고 중국어 성경 중에서는 <신천성서>에 무게 중심을 실어서 최종적으로 “돌 쓰는 곳”이라고 번역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된 것이 에훗 이야기의 해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KJV의 “채석장”이라는 번역은 현대 영어성경에서는 이미 제외되었고, NRS(the sculptured stones), GNT(the carve stones), NET(the carved images) 등의 성경에서 보듯이, “조각된 돌들/형상”의 맥락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에훗 이야기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각된 돌들이 있는 곳”을 에훗이 들렀다가 다시 에글론을 만나러 혼자서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에훗이 에글론에게 말한 “은밀한 일”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표현은 에훗이 “조각된 돌들이 있는 곳”을 다녀온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에글론은 에훗이 이곳에서 들은 신의 계시를 그에게 전해주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표현을 듣고 에글론은 앉아 있던 좌석에서 일어나게 되고 에훗은 그가 준비했던 단점으로 효과적으로 에글론을 죽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מִי־הַבָּשֵׁלִים을 “채석장”이라고 번역하면, 단순히 에훗이 거처간 장소만을 의미하게 되는 데 그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에훗의 말에 대한 에글론의 반응들과의 연관성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 표현을 “조각된 돌들이 있는 곳”으로 번역하면, 에훗의 말들에 대한 에글론의 반응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고대의 본문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T가 우리에게 전해준 본문의 표현을 올바르게

번역하는 일은 구약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임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보여준 **אֶהוּד**에 대한 새로운 번역 제안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에 충실하며, 우리나라 성도들의 에훗 이야기 이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Keywords)

에훗, 사사기 3:19-20, 돌 뜨는 곳, 『성경전서』(1911), 에글론.  
Ehud, Judges 3:19-20, the quarries, Korean Bible (1911), Eglon.

(투고 일자: 2023년 7월 27일, 심사 일자: 2023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10월 11일)

<참고문헌>(References)

- 이샤야, “사사 시대와 사사기의 하나님 임재 상징”, 「종교연구」 58 (2010), 275-300.
- 임봉대, “사사기 1:9-15에 나타난 남부지파들의 정착과 약속의 땅 성취에 관한 고찰”, 「구약논단」 26 (2020), 37-59.
- 장석정, “공존의 위험성: 삼손이야기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91 (2020), 209-236.
- 장석정, “과도기적(過渡期的) 나실인’ 삼손 — 사사기 13장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5 (2021), 1-32.
- 장석정, “기드온 시대의 바알 숭배 연구 — 사사기 6:25-32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2 (2018), 9-34.
- 장석정, “들릴라 다시 보기: 사사기 16장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95 (2021), 11-36.
- 장석정, “모호성(Ambiguity) 연구: 입다의 서원 이야기(삿 11:29-40)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197 (2022), 37-61.
- 장석정, “사사기 순환구조 재고: 가능성 있는 내용의 부재를 중심으로”, 「신학논단」 84 (2016), 144-45.
- 장석정, “사사기에 사용된 šapat 동사 우리말 번역 제안 — 사사 옷니엘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9 (2016), 7-25.
- 장석정, “사사기 11:37-38 번역 연구 — ‘처녀로 죽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0 별책 (2022), 14-21.
-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복합적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8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7-28.
- 장석정, “출애굽기 4:10의 번역 제안과 이해 —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 32-56.
- 정일승, “사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의 임재 현상에 대한 우리말 번역 제언”, 「성경원문연구」 40 (2017), 7-29.
- Amit, Y.,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diting*, Leiden: Brill, 1999.
- Ausloos, H., “The Story of Ehud and Eglon in Judges 3:12-30: A Literary Pearl as a Theological Stumbling Block”, *OTE* 30 (2017), 225-239.
- Boling, R. G., *Judg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6A, Garden City: Doubleday, 1965.
- Chisholm, R., “Ehud: Assessing an Assassin”, *BS* 168 (2011), 274-282.
- Chisholm, R., “What’s Wrong with This Picture? Stylistic Variation as a Rhetorical Technique in Judges”, *JSOT* 34 (2009), 171-182.
- Christianson, E., “A Fistful of Shekels: Scrutinizing Ehud’s Entertaining Violence

- (Judges 3:12-30)", *BI* 11 (2003), 53-78.
- Conway, M. L., *Judging the Judges: A Narrative Appraisal Analysis*, LSAWS 15, University Park: Eisenbrauns, 2020.
- Cottrill, A. C., "A Reading of Ehud and Jael through the Lens of Affect Theory", *Biblical Interpretation* 22 (2014), 430-449.
- Kraeling, E. G., "Difficulties in the Story of Ehud", *JBL* 54 (1935), 205-210.
- Magness, J., "Toilets and Toilet Humor in the Story of Eglon's Murder by Ehud (Judges 3:15-26)", *JBL* 142 (2023), 65-89.
- Murphy, K., "Judges in Recent Research", *CBR* 15 (2017), 179-213.
- Neef, H.-D., "Eglon as 'Käbermann'? Exegetische Beobachtungen zu Jdc 3:12-30", *VT* 59 (2009), 284-94.
- Nelson, R., *Judges: A Critical & Rhetorical Commentary*, New York: T&T Clark, 2017.
- Sasson, J., "Ethnically Cultured Interpretations: The Case of Eglon's Murder (Judges 3)", G. Galil, M. Geller, and A. Millard, eds., *Homeland and Exile: Biblical and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in Honour of Bustenay Oded*, VTSup 130, Leiden: Brill, 2009, 571-595.
- Sasson, J., *Judges 1-12*, Anchor Yale Bible 6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 Schneider, T., *Judges*, Berit Olam,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 Schroeder, R., "Eglon's Fat and Ehud's Oracle: A Reconsideration of Humour in Judges 3.12-30", *JSOT* 46 (2022), 460-479.
- Smelik, W., *The Targum of Judges*, Leiden: Brill, 1995.
- Smith, M., *Judges 1: A Commentary on Judges 1:1-10:5*,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21.
- Stone, L., "Eglon's Belly and Ehud's Blade: A Reconsideration", *JBL* 128 (2009), 649-663.
- Webb, B., *The Book of Judges: An Intergrated Reading*, JSOTSup 4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 Wénn, P., "Le »point de vue raconté«, une catégorie utile pour étudier les récits bibliques?: L'exemple du meurtre d'Églôn par Éhud (Jdc 3,15-26a)", *ZAW* 120 (2008), 14-27.
- Wong, G., "Ehud and Joab: Separated at Birth?", *VT* 56 (2006), 399-412.

<Abstract>

**A Translation Proposal and Understanding of הַפְּסִילִים  
in Judges 3:19:  
Focused on Ehud Story**

Sok-Chung Cha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clearly shows that the Hebrew word הַפְּסִילִים has been translated into 돌 뜨는 곳 (the place where the stones were cut, i.e. quarries) since the Korean Bible(hereinafter KB, 1911) up to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1998). After reviewing various original texts as well as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Bible translations, which the translation Committee for KB consulted, I found the most surprising fact that the Hebrew word means the sculptured stones, and LXX translated it into *the sculptures* but Targum translated it into “the quarries.” Targum’s translation is important because KJV, ERV, and ASV not only translated MT literally but also seem to follow Targum’s translation of *the quarries* instead of Vulgate’s where *the idols* was used.

The translation committee for KB is thought to have consulted the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Bibles instead of the original texts. Among those consulted Bibles, English Bibles translated the Hebrew word into *quarries*, so the committee might have treated them more importantly than the rest. Scholars have also thought that the committee consulted the Delegates’ Version (1856) and the Bridgman-Cullbertson’s Version (1864) among the Chinese Bibles. After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various Chinese Bibles, I however found that these two Bibles translated it into where *there was a sculptural shape* and *the place of the statues* respectively. Only Morrison’s Version (1823) translated it into “the quarry.” Moreover, in the case of the Japanese Bibles, Meiji Version (1887) translated it into *the place where the stone statue was*.

Therefore, the committee considered KJV, ERV, ASV, and Morrison’s Version more than other Bibles and finally translated it into 돌 뜨는 곳 (the quarries). However, this translation has been a stumbling block for the interpretation of Ehud’s story. “The quarries” in KJV has been deleted among

the modern English translations: NRS (the sculptured stones), GNT (the carved stones), and NET (the carved images). In the scholarly world, the majority of scholars focus on the fact that Ehud returned from the sculptured stones and came to meet Eglon alone.

If we translate הַפְּסִילִים into the quarries, it only means a place where Ehud passed by. Then it becomes difficult for the readers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hud's sayings and Eglon's responses. But If we translate it into "the sculptured stones" like NRS, the reader could easily understand Eglon's responses to Ehud's saying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culptured stones* in Ehud's assassination of Eglon. Although translating the ancient texts correctly into modern languages is not easy at all, it is a sacred responsibility of Hebrew Bible scholars, and they should do it with all their hearts and minds. This study shows that the new Korean translation of הַפְּסִילִים into 조각된 돌들이 있는 곳 seems to be faithful to the meaning of the Hebrew text (MT) and could contribute to Korean Christians' understanding of the story of Ehud.